

SF를 경유한 한국문학과 감수성의 변화

- 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연남경*

1. 들어가며
2. 1960년대의 감수성의 혁명: 진정성의 주체와 기술 발전에의 불안
3. 1990년대 문단문학 밖의 SF: 반(反)휴머니즘과 주체의 해체
4. 2020년대의 포스트 감수성: 감각하는 존재와 따뜻한 과학
5. 나가며

국문초록

현재 한국문학은 SF와 문단문학의 조우를 통한 부흥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감수성의 차원에서 김승옥의 1960년대 SF, 듀나의 1990년대 SF, 천선란의 2020년대 SF를 통과하며 변화하는 주체성의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김승옥은 ‘감수성의 혁명’을 통해 한국문학에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알렸고, 4.19세대는 스스로의 문학에 등장한 개인을 ‘진정성의 주체’로서 미화한다. 이에 기반한 김승옥의 〈50年後, Dπ9記者의 어느날〉(1970)은 기술 발전에의 예측은 기발한 한편 여성 타자화와 인간중심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인간(남성) 주체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불안이 지배하는 서사는 SF임에도 사회의 혁신을 상상하지 못한다. 1990년대 듀나의 SF는 진정성의 계승에 매몰되었던 문단문학과 철저히 무관했기에 역설적으로 1990년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의 문학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하다. 사이버공간에서 한국 SF를 장르문학으로 정립시킨 듀나는 주체 자체에 무심함으로써 자유주의 휴머니즘 주체를 해체할 뿐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는 반(反)인간주의의 세계관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써 듀나의 SF는 직접적으로 가부장제를 공격하거나 여성 문제를 발화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인 남성 중심의 진정성 레짐을 해체하고 근대적 휴머니즘의 외부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스트 시각을 확보한다.

한편 1960년대 김승옥이 개인의 발견과 자기세계의 구축을 통해 '감수성의 혁명'을 가져왔다면, 2020년대 천선란은 타자의 행복을 느끼며 변하는 휴머노이드 콜리를 통해 '포스트 감수성'을 제시한다. 『천 개의 파랑』(2020)에서 천선란은 감수성을 인간만의 전유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기계 모두 감각하는 방식이 다름지언정 공히 감수성을 갖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렇게 최근 한국문학이 보여주는 '포스트 감수성'은 모든 감각하는 존재의 특징으로 확장됨으로써 대상을 타자화하고 자기와 구별 지음으로써 주체성을 확보했던 진정성의 주체와 결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과학소설과 일반소설, 그리고 페미니즘이 교차하는 사변적 페미니즘(SF)을 통해 예시된다.

(주제어: 사변적 페미니즘(SF), 감수성, 진정성의 주체, 감각하는 존재, 김승옥, 듀나, 천선란)

1. 들어가며

한국문학장에 SF 열풍이 불어닥쳤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국소설에는 인간 외에도 인공지능, 로봇, 클론, 외계인, 동물, 식물 등의 비인간 존재들이 다수 출몰한다. 그런데 기존에 익숙하게 봐왔던 AI의 반란이나 인간을

통제하는 기계와 같은 갈등과 파국의 플롯 대신, 비인간 타자들이 상호 연결되고 공감하며 공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주에서 전쟁을 하고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개척하는 대신 AI가 우주 난민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분투하고(〈얼마나 닳았는가〉), 휴머노이드와 인간, 동물 사이의 우정이 소중하며(『천 개의 파랑』), 인간을 향한 로봇의 사랑과 애도가 나타난다(『랑과 나의 사막』). 안드로이드와 식물의 교감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지구 끝의 온실』), 생태계를 굴절시키지 않기 위해 동식물에 지상을 내주고 지하에서 사는 인류의 모습이나(〈리셋〉), 지구의 모든 존재와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오래된 협약〉, 『파견자들』)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쓰이고 또 읽히고 있다.

『자음과모음』(2019년 가을호)의 특집 기획 'SF 비평의 서막'에 실린 글들을 보면, 이와 같은 한국적 SF의 특수성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지용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이 등장한다는 점과 일상의 서사와 사랑의 가치가 중시되는 점을 최근 한국의 SF가 보여주는 특징으로 꼽는다.¹⁾ 인아영은 젠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SF의 상상력을 점검하고²⁾, 정은경은 젠더 유토피아 기획을 위해 최근 SF가 은유이자 알레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 요컨대 이 특집은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교차, 페미니즘과 SF의 교차가 최근 한국 SF의 특징이라는 점을 포착해내고 있다.

SF 공동체는 유독 장르 규정과 정의에 관심이 많은 동네이고, 장르 관습과 문법을 중시하며 '정통 SF'를 고수하려는 입장도 여전하다.⁴⁾ 팬덤 내부

1) 이지용, 「한국 SF가 보여주는 새로운 인식들: 환상과 미래, 비인간 행위자들과 낭만적 사실의 전회」, 『자음과모음』 제42호, 2019 가을호, 78~88쪽.

2)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위의 책, 46~58쪽.

3) 정은경, 「SF와 젠더 유토피아」, 위의 책, 22~35쪽.

4) 두나, 「일반 독자와 장르 독자」, 위의 책, 90~95쪽.

에서도 SF 소설에 관한 지식과 활동 범위, 독서량 등에 따라 지존, 골수팬, 중팬, 입문자 등의 경계가 작용해왔으며, ‘골수팬’ 논쟁⁵⁾이 빚어졌을 정도로 팬덤의 활동이 적극적이며 진입장벽 또한 높다. 그렇기에 소규모였다 할지라도 1990년대 초 PC 통신에서 장르문학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SF는 확실한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⁶⁾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의 SF 현상을 야기한 것은 기존의 SF 팬덤만이 아니라 관심을 SF로 돌린 20·30 페미니스트 독자층의 지분이 크다는 것이다. 과학소설 독자 중 20대 여성이 1.4%(1999~2009년)에서 12.6%(2010~2019년)로 늘었고, 30대 여성은 11.1%에서 18.2%로 늘었다⁷⁾거나 2020년 한국소설 판매가 전년 대비 30.1%의 신장률을 보이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장르별로는 SF가 약 5.5배 늘었다는 통계와 2019년에 가장 주목받은 작품이 김초엽의 SF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⁸⁾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정리하면 2019년 김초엽의 『우빛속』을 계기로, SF를 중심으로 한국소설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 현상을 견인하는 것은 바로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때, SF 현상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그와 연동된 독자 운동과 맞물린다.

최근 한국문학장의 움직임을 보면, 표절 사태로 시작된 비평중심주의와

5) 2000년 5월 ‘유니텔 1548’에서 시작된 논쟁은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까지 30여 개의 관련글이 이어졌다. 한상현, 『1990년대 한국 SF 소설 팬덤의 문화 실천』, 『현대소설 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265-266쪽.

6) 한국 SF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7) 임지영, 〈‘과학소설’ 전성시대, 왜 지금 SF일까?〉, 『시사IN』, 2020.11.25., 접속일: 2023.07.0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10>.

8) 배문규,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 역대 최다... 여성 독자들이 이끌고, SF·청소년 장르 다양해졌다〉, 『경향신문』, 2020.09.22. 접속일: 2023.07.06.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09221030001>.

계간지 시스템 재편에 대한 폭넓은 요청이 페미니즘 이슈와 만나면서 근대 이후 수립된 문학에 대한 근본적으로 전면적인 질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김지영 현상'을 야기한 '페미니스트-독자 시대'¹⁰⁾에 'SF 현상'은 연결된다. 시대와 싸우기 위해 연대하는 독자들이 손에 쥔 책들이 이번에는 SF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문학장에 형성된 'SF 공동체'는 기존의 SF 팬덤과 조우하여 확산 중이며, 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SF 장르 향유 방식과 페미니스트-독자들의 행위성이 맞물려 SF 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SF 현상은 텍스트 내적으로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교차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텍스트 외부의 컨텍스트 차원에서 SF 팬덤과 영 페미니스트 독자들의 교차도 이루어진 것이다. 가령, SF를 새롭게 손에 쥔 독자들은 김초엽의 SF를 '따뜻하다', '친절하다', '아름답다', '낙관과 긍정'과 같은 어휘들로 설명한다. "SF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려 노력하며(...) 가볍고 친절하게 SF 소재를 다루는 방식"과 "여성 서사나 현실의 문제 등 당시 한국문학이 이야기 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말한다"¹¹⁾는 반응은 페미니즘 리부트를 야기한 현재의 상황에 SF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며, 왜 영 페미니스트-독자들이 SF를 선택했는지 가늠하게 한다. 현재의 SF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친절하고 쉬운 SF로 독자에게 다가갔으며, 그러면서도 현실 변화의 강력한 장치로서 SF가 내장한 힘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SF는 이중의 장점을 통해 페미니스트의 언어, 표현, 방법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SF 현상은 페미니스트 작가뿐 아니라 비평가들, 작품을 읽은 독자와 팬을 포함해 형성되었다는 차원에서 'SF 페미니즘'에 해당

9) 소영현,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은_위험하다』, 민음의 비평10, 민음사, 2019, 209-210쪽.

10) 허윤,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 위의 책, 193-204쪽.

11) 김다희·박준기·이정연·이민재, 「대담: 김초엽의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글리프]」, 『글리프 6호: 김초엽[실험]』, M.D.LAP PRESS, 2022, 143쪽.

한다.¹²⁾ 아울러 일련의 문단문학의 행보와도 이어진다. 최은영의 ‘순하고 맑은 서사’가 갖는 ‘은밀한 반역의 기미와 여자들의 연대’¹³⁾, 황정은의 모녀 서사가 갖는 세대 격차를 넘나드는 공감, 김멜라의 퀴어서사가 갖는 상호 돌봄과 재명명의 정치성과 멀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한국의 SF는 ‘SF 페미니즘’과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¹⁴⁾, 그리고 일반소설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¹⁵⁾으로 볼 수 있다.¹⁶⁾

따라서 현재의 사변적 페미니즘은 일반적인 SF의 장르 관습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하드 SF가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세계관이 중요하며 심지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반면, 현재 한국의 SF는 차별과

12) 헬렌 메릭에 의하면 SF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 SF를 포함해 SF 팬들이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을 나타낸다. 페미니스트 SF와 SF 페미니즘의 가장 큰 차이는 팬덤이다.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의이야기』, 요다, 2021, 21-23쪽 참고.

13) 오혜진, 「'이야기꾼'의 젠더와 '페미니즘 리부트'」, 권보드레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항들』, 민음사, 2018, 366-367쪽.

14) 사변소설이라는 용어는 작가, 독자와 팬, 평론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오락적이고 저급한 장르가 아닌 사색적인 고급 장르로서 과학소설, 들깨, 환상소설, 공포소설, 미스터리소설, 과학소설 등 다양한 상상문학을 포괄하는 용어(사변물). 셋째,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처럼, 가상의 과학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비-리얼리즘 소설, 한편 과학소설 팬 가운데 일부는 사변소설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변소설이란 역어 대신 추론소설이나 사색소설을 택하기도 한다. 노대원, 「미래를 다시 꿈꾸기-한국과 글로벌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들」, 『탈경계인문학』 제33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35-36쪽.

15) 최근 도나 해러웨이는 SF를 “과학소설science fiction,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과학판타지science fantasy,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실뜨기string figures를 위한 기호”로 다양하게 부르며, SF의 범주를 넓히는 중이다. 이에 따르면 SF는 과학소설(science fiction)임과 동시에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이라 볼 수 있다.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10, 23쪽 참고.

16) 이상 한국문학의 ‘SF 현상’을 ‘페미니스트-독자 운동’과 연결시키고, 이를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보는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줄고,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 『이화어문논집』 제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2-14쪽.

차이와 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약자(인물) 간의 유대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 그러하다.¹⁷⁾ SF 공동체로 사회적 타자와 연결된 독자들은 여전한 타자로서 여성뿐 아니라 소수자, 퀴어, 장애의 문제와 접촉하고, 나아가 인간 중심주의의 자연-문화가 타자화한 로봇, 사이보그, 클론, 동물, 식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들과 이어지고 공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SF는 인간 아닌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의 등장에 집중하며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으로 많이 입혀왔고,¹⁸⁾ 또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다.¹⁹⁾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국문학이 다양한 존재들에게 갖는 관심을 ‘감수성’의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스티븐 사비로는 현재의 지식과 학문이 지나치게 인지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를 협소하게 이해한

17) 심완선, 「작가와와의 대화」, SF 비평 세미나, 2023.7.8.

18) 김운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 『비평문학』 제6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노대원, 「포스트휴먼(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제200호, 국어국문학회, 2022 등.

19)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강은교, 「페미니스트 세계 만들기로서 듀나의 SF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김운정, 「여성 SF 소설의 테크노피아와 소수자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7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안서현, 「여성 SF가 사유하는 돌봄의 익숙한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5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양윤의, 「PB+SF+FS -Post-human Body+Science Fiction+Feminism Story」, 『문학과사회』 제32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19;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보영, 김초엽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등.

다고 한다. 따라서 인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SF의 사변이 필요하며, 감수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감수성(sentience)’은 감각하고 느끼는 것에 가깝다.²⁰⁾ 본고는 한국문학에서 감수성의 차원에서 비롯된 주체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감수성의 혁명으로 근대적 주체를 형상화한 김승옥의 1960년대 SF, 반(反)인간주의를 통해 주체 해체를 보여준 듀나의 1990년대 SF를 경유한다. 그리고 2020년대 천선란의 SF에 나타난 포스트 감수성과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2. 1960년대의 감수성의 혁명: 진정성의 주체와 기술 발전에의 불안

한국문학에서 ‘감수성’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가는 김승옥일 것이다. 김승옥은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호명을 통해 4.19세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작가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승옥이 SF를 썼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1970년에 발표된 〈50年後, Dπ9記者의 어느날〉²¹⁾은 동아일보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상하로 연재된 단편 SF다. 50년 후인 2020년을 설정하고 쓴 문혀 있던 이 신문소설은 SF 열풍이 뜨거웠던 2020년을 기념하여 재조명되었다.²²⁾

20) 스티븐 사비로, 『탈인지-SF로 철학하기 그리고 아무도 아니지 않은 자로 있기』, 안호성 역, 갈무리, 2022, 13-29쪽.

21) 『동아일보』, 1970.04.01.-02.

22) 후배 작가들이 오마주한 『SF 김승옥』이라는 소설집도 출판되었다. (『파주시중앙도서관, 『SF 김승옥』 온라인 북토크 진행-〈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와 후배 작가들의 만남-』, 입력일 2020.12.17., 접속일 2023.08.31. https://www.paju.go.kr/news/user/BD_newsView.do?q_ctgCd=1001&newsSeq=440)

주지하듯 김승옥은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호명으로 4.19세대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4.19세대가 곧 한글세대임을 뜻하였다. 전후세대 비평가 유종호는 1960년대 한글세대가 이룩한 문학적인 감수성의 혁명을 김승옥의 소설에서 발견했으며, 일상어가 갖는 밀도와 언어의 감각적 세련성에 관해 경이의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²³⁾ 일본어 세대 소설가인 장용학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언어를 통한 새로운 감수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고,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상찬한 것이다.²⁴⁾ 유종호가 일본어 대신 한글 교육을 받고 일상과 밀착된 한국어를 구사하는 김승옥을 통해 언어의 혁명을 발견했다면, 김승옥과 같은 한글세대인 4.19세대 비평가들은 김승옥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발견한다.

문학과 지성의 언어 탐구를 표방한 ‘문학과지성’ 비평가 그룹은 4.19세대의 문학에 등장한 개인을 ‘진정성의 주체’로서 의미화한다. 김주연은 김승옥이 보여준 트리비얼리즘에서 ‘사소한 것의 사소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느끼는 한 개인의 의식을 중요시한다. 그를 통해 개인이 발견된다.²⁵⁾ 대상을 느끼는 감각(감수성)이 인식의 원천이라는 것이다.²⁶⁾ 여기서 감수성은 언어의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으로 이동한다. 대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출현을 새시대 문학의 성립으로 보며, 4.19세대의 문학은 전후세대를 타자화하며 출현한다. 전후문학이 “자기가 없는 인습과 관행 속의 인물”을 관념적으로 제시할 뿐이라면 4.19세대의 문학은 대상을 느끼는 개인이 있고, 개인이 느낌으로써 사건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

23)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1966), 『문학과 현실』, 민음사, 1975, 147쪽.

24) 송희복, 「유종호의 문학비평에 투영된 언어관 내지 어문 의식」, 『한국어문학연구』 제 60집, 동악어문학회, 2013, 232쪽.

25)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창간호, 1969, 2월호, 255쪽.

26) 위의 글, 267쪽.

권을 감각하여 자기세계를 갖는 개인, 즉 근대적 주체가 드디어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4.19세대는 김승옥, 박태순, 이청준을 경유하여 스스로를 ‘소시민 의식’에서 출발하는 개성적 인간이자, 인식과 성찰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한다. 맹목적 선이나 도덕적 엄숙주의 대신 지성의 방법론적 회의를 중시하고, 선형적 결론 대신 방법적 성찰의 사고과정을 중시한 문지 에콜은 자유주의와 문학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를 표방했다. 진정성을 ‘주체화의 장치로 기능하는 마음의 레짐’으로 정의할 때²⁷⁾ 진정성의 주체는 4.19세대에서 그 기원이 찾아질 수 있다. 이들에 의해 ‘성찰하고 고뇌하고 반성하는 인간’이 진정성의 주체라 규정될 때, 문제는 인식의 주체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타자들은 배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성의 언어는 상처의 언어, 배제의 언어, 전제의 언어로 작용하는 것이다.²⁸⁾ 인식의 주체에 미달하는 타자들은 배제되었는데, 김승옥 소설에서 그것은 주로 여성이고 누이였다. 김승옥이 자신의 촌놈의식을 여성 타자화를 통해 가렸다는 논의들이 이런 맥락에서 불거져나오고 있기도 하다.²⁹⁾

이런 차원에서 1970년에 김승옥이 쓴 SF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 소설이 상정한 50년 후의 미래는 바로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다. 감수성의 작가답게 기술 발전에의 예측에도 일상의 디테일이 살아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준(호출번호-D·π·9)이 타는 ‘GUIYOMI19(귀요미19)’는 ‘수상전화기(휴대폰)’와 ‘레이다’와 ‘컴퓨터’

2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4쪽.

28) 위의 글, 36쪽.

29) 강지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 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제67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김은하,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지방 출신 대학생의 도시 입사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0집,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17 등.

로 조종되는 자동운전장치(자율주행기능)가 탑재된 전기자동차다. 준 부부는 한국인구문제연구원으로부터 둘째 아이를 가져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하느님의 집’의 ‘인공자궁’에서 둘째 아이를 배양 중이다. 매일 아침의 인기 프로그램인 <대통령과 아침을>에 준의 어머니인 윤 여사가 출연해 최근의 연쇄살인사건을 화제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다. ‘세포재생미용법’으로 윤 여사는 팽팽한 피부를 갖고 있으며, 과학자가 매우 우대받는 세상이다. 연쇄살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이 모두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이며, ‘정형수술(성형수술)’에 의한 미인들이라는 것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크며, 섬유학자로서 학술원 회원인 아내의 경우, 연구논문이 컴퓨터센터에 입기되는 영광을 얻는데, 이는 연구의 완벽성을 인정받아 평생 돈 걱정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1970년을 살던 김승옥이 상상한 2020년은 (자율주행)전기차와 휴대폰의 상용화, 플라스틱 포장지에 담겨 배송되는 식사,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의 이용 등 현재 우리의 일상을 마치 살아본 듯 핏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남북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서울~평양~신의주를 삼십분만에 달릴 수 있다는 지하진공철도”가 한창 진행중이라는 언급에서는 통일한국이라는 소망이 충족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자가 우대받고 기술 발전으로 편리해진 한편, 인구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며, 대통령은 마스크에 출연해 매일 아침 주요 정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초청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그것은 친근감과 선택적 정보 제공으로 국정에 대한 비판의식을 잠재우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비판은 노년층에서 주로 제기되기에 청소년문제보다는 노인문제가 대두된다. 사람들은 부작용 없는 안정제를 남용하는데, 약물을 신뢰하지 않는 노년층이 주로 비판적 의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약물로 비판적 지성을 통제하는 사회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회부 기자답게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고 고뇌하는 비판적 지식인 준은 고도의 전략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전기를 흡수해버리는 ‘흡전기류’의 공격으로 인공자궁에서 자라는 둘째를 잃을지 모른다는 꿈을 꾸는데, 이는 기술 발전의 현실에 대한 준의 불안을 암시한다. 연쇄살인사건을 취재 중이던 준은 어머니인 윤 여사가 <대통령과 아침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날 오후에 자살한 알파로부터 영상편지를 받는다. 알파(L박사)는 세계 최초의 인공자궁 출생인이자 한국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천재 과학자였는데, 자신이 살인범이었음을 자백하고 자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살한 L박사의 메시지

준, 그 여자들은 내가 죽였습니다. 경찰이나 신문이 주장하듯, 치정관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그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로서 사랑한게 아니라 그들의 과학에의 열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가 광속로켓의 최초의 설계자가 되어야겠다는 듯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광속로켓, 그것은 우리 세기의 위대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준, 앞으로 화성에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혼자서 조용히 어두운 우주를 바라보아 주기 바랍니다.(...)

준, 나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먼 어느 별을 향하여 떠나기 위해 지구에 태어난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죽은 여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준, 화성에서 나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였습니다. 내가 가장 가기를 원하는 곳, 그곳은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또 하나의 발견을 했습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수억배 수천억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체, 그것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가설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비행체는 영혼이라는 내 가설에 대한 얘기를 그 여자들에게 들려주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광속로켓 개발의 무의미성을 깨닫고 실망했으며 서로 자기가 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게 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준, 그들은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과학상의 새로운 증명을 위해 날아가버린 뒤 뜻밖에도 나를 습격하는 공포, 아아, 공포. 우주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못 느껴본 공포,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범인이 만일 내 자식이라면...” 하시다가 말문이 막혀버리는 당신 어머니의 눈물(...) 나는 그 눈물이 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오늘까지 유지시켜온 건 과학도 지식도 아니고 살인자인 아들에게 호소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³⁰⁾

과학주의로의 매몰은 결국 인간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은 기술 발전으로 치닫는 세상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것임을 암시한다. “불확실한 추리로써 대중들에게 과학자는 살인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삼가야”하는 세상의 원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 아무리 공간이 확장되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고향별인 지구이며, 기술발전의 끝은 죽음일 뿐이기에 공포에 압도당한 인간이 기댈 곳은 모성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승옥의 SF는 인간의 죽음, 공포, 불행을 야기하는 과학기술의 지나친 발전을 경계하고 있다.

알파 박사의 영상편지를 접한 후에도 준은 아내와 딸과 함께 ‘오락장’에서 게임을 하며 일상을 유지한다. 둘째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드러내는 준을 향해 아내는 준을 안심시키고자 안정제 복용을 권한다. 알파가 모성의 위대함을 깨닫고 자살을 감행했다면, 준은 가족주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알파를 외면하고 가족과 일상을 유지하는 준의 모습에서

30) 김승옥, 〈50年後, Dπ9記者の 어느날〉 下, 『동아일보』, 1970.04.02., 15면.

무진을 뒤로 하고 서울의 아내에게 향하는 <무진기행>의 윤희중이 보인다. 근대화의 불안을 감추고 성공한 아내의 세계로 숨는 남성의 이야기는 이미 익숙한 <무진기행>의 플롯과 겹쳐진다. 현실에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며 부적응한 알파, 성공한 과학자로서 승승장구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아내 사이에서 준은 동요한다. <무진기행>이 무력한 개인의 지각의 범위를 압도하며 전개되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근대성 앞의 불안의 정서를 보여주었듯,³¹⁾ <50年後, Dπ9記者의 어느날>에도 근대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미래의 기술 발달 현실이 도래하였고, 그에 처한 주체의 불안이 나타난다.

<50年後, Dπ9記者의 어느날>이 보여주는 미래에의 상상력은 기발한 한편 빈곤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니고 휴대폰을 쓰며 화상통신을 한다는 상상은 이미 실현되었다. 인공자궁으로 출산하고 우주로 삶이 확장된 것은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미래에의 상상이다. 또한 윤 여사와 아내, 여성 과학자들을 통해 여권이 신장한 미래사회를 제시한다. 인공자궁 기술로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여전한 젊음을 유지하는 윤 여사는 대통령을 독대하고, 성공한 과학자 아내는 학술원 회원이다. 사회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젠더 격차나 성차별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사회이고 공간이 우주로 확장되었지만, 가족주의와 인간중심주의는 1960년대 한국사회와 다를 바 없다. 어머니의 희생을 전제하는 모성 신화가 드리워져 있고, 여성인물들에게는 현실 비판의식이나 자의식이 할당되어 있지 않으며, 인공자궁 출산이 가능함에도 이성애핵가족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술 발전 시대에 비인간 존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상력의 빈곤이다. 그렇다면 기술

31)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66쪽.

발전의 미래상을 뾰족하게 예측하는 것과 달리 사회 변화의 차원에서 유독 상상력이 빈곤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작품은 SF임에도 고뇌하는 남성 인물 중심의 서사라는 점에서 진정성 레짐에 간혀 있다. 이렇게 지식인 남성 인물만이 진정성의 주체로서 유일하게 세상의 인식을 담당할 때,³²⁾ 세계관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미래의 시간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사회 변화를 상상하지 못할뿐더러 고도의 기술 발전에 대해 갖는 공포는 주체의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네틱스를 창안하여 인간과 기계의 유사성을 확보하였음에도 자유주의 휴머니즘 주체성이 보존되지 못할까 두려워한 노버트 위너가 보였던 불안과 일맥상통한다.³³⁾ 이처럼 진정성 레짐 안에서 창작된 김승옥의 SF는 감수성의 차원에서 인간(남성) 주체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불안이 발현될 뿐 아니라, 사회 혁신과 세계 변화에 대한 상상력도 제한적이다.

3. 1990년대 문단문학 밖의 SF: 반(反)휴머니즘과 주체의 해체

김홍중에 의하면 진정성 레짐은 근대문학의 종언과 더불어 막을 내렸지만, 87년 체제 이후로 한국사회는 포스트 진정성 체제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진정성 레짐을 80년대적 도덕적 진정성, 90년대적 윤리적 진정성이라 할 때, 97년 체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한국사회는 진정성의 레짐이 작동하던 시대였다는 것이다.³⁴⁾ 1980년대 후반,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문학장

32) 『동아일보』의 창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소설이라 주인공의 직업이 신문 기자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970년 당시 기자라는 직업은 세상을 인식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지식인 남성 주체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33)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플래닛, 2013, 163-167쪽.

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1990년대 문학에 관하여 1980년대의 이념, 역사, 해방 등의 거대담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개인’, ‘일상’, ‘내면’과 같은 미시서사가 채웠다고 정리되었다. 한편 1990년대는 ‘여성작가의 시대’라 불리기도 했는데, 근대문학의 종언 이후, 문학의 주변화와 여성의 주변적 위상이 화해롭게 조우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면서 신경숙이 1990년대 여성문학의 기표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대해 도덕적 진정성의 대표 매체였던 『창작과비평』이 신경숙을 승인함으로써 포스트 진정성 체제인 90년대에 연착륙했다면, 90년대 문단문학을 대표하는 『문학동네』는 신경숙의 『외딴 방』을 연재하며 90년대적 윤리적 진정성을 통해 문학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다는 논의가 제출되었다.³⁵⁾ 아울러 90년대 초 유입된 포스트모더니즘이 표절 사태와 오버랩되면서 문단 내에서 폄하됨과 동시에 리얼리즘 자장에서의 여성해방문학과 의 관계에서 협소해졌다는 시각 또한 유효하다.³⁶⁾ 정리하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90년대에 진정성의 계승에 매몰된 문학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폄하와 더불어 여성문학의 범주를 축소시켰고, 문단문학 주변과 바깥의 다양한 문학적 성과와 문화운동을 외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기존의 문학사 기술 시각에 반발하며, 이 시기 문학 연구를 새롭게 보자는 요구들이 제출되고 있다.³⁷⁾ 그중 문단문학 바깥에서 열린 『또 하나의 문화』와 같은 무크지의 여성주의 문화운동,³⁸⁾ PC통신이라

34) 김홍중, 앞의 책, 38쪽.

35)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1990년대 한국문학장의 재편과 여성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제11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5, 278-301쪽 참고.

36)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410쪽 참고.

37)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제66호, 상허학회, 2022.

38)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여성주의 문화운동 ‘또 하나의 문화’가 지닌 ‘제3의 장소성」,

는 다른 매체 실천을 통한 사이버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³⁹⁾ 이를 통해 개인과 내면성, 진정성, 비이념으로 요약되는 『문학동네』의 문학주의 위주의 담론을 비판하고,⁴⁰⁾ 축소되었던 1990년대의 성과를 확장 중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이론을 수용하고 문화연구의 시작을 가능케 한 『문화과학』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1992년에 창간된 『문화과학』은 유물론적 문화이론을 표방한 잡지였고, 한국에 문화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지면을 제공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학 담론과 SF 관련 글들이 실리기도 했다. ‘여성의 몸’, ‘사이버 공간’, ‘신체, 테크놀로지’, ‘테크노, 사이버펑크, 사이버스페이스’ 등의 특집을 보면, 새롭게 열린 사이버 공간과 신체성에의 관심, 특히 몸페미니즘 중심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중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담론장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이 1990년대에 이미 번역되어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캐서린 헤일스의 〈사이버공간의 유혹〉(7호, 1995),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8호, 1995), 로지 브라이도티의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15호, 1998)와 같은 글이 실렸는데, 이는 당시 이론이 활발하던 영미권과 동시에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포스트휴머니즘 중에서도 페미니스트 시각의 이론이 주로 번역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하이텔 내의 소규모 모임 ‘사이버문학 비평그룹’ 버전업은 계간 『버전업』을 함께 출판하는 방식으로 사이버공간과 지면을 왕래하며 새로

『구보학보』 제27집, 구보학회, 2021; 윤조원, 「페미니스트 돌봄-문화정치학-무크지 『또하나의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22.

39) 노태훈, 「비평의 시대와 그 무수한 흔적들」,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40)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운 문학을 추구하였다.⁴¹⁾ 창간사에 의하면, “사이버문학’은 PC통신의 실시간성과 소통구조의 쌍방향성에 기인하는 글쓰기”로 작가/독자, 창작/비평의 분리를 해체하고, “폐쇄적인 문단구조의 해체를 겨냥”하는 문학을 추구한다.⁴²⁾ 이를 두고 “사이버문학의 상상력은 SF와 판타지로 귀의하거나 현실과의 관계에서 탈리얼리즘적 경향을”⁴³⁾ 갖는다고 보는 시각도 유의미하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에서의 SF와 판타지는 현실과 무관하게, 작가와 독자가 가상 세계에서 즐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이버공간과 계간지를 넘나드는 독특한 기획의 잡지 『버전업』에서는 PC통신과 문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김영하, 윤대녕, 송경아에 주목하는 한편, PC통신을 기반으로 한 장르문학으로 SF와 듀나를 주요하게 호명한다. 창간호에 〈비잔티움〉이 실렸는가 하면, 작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작품을 PC통신 게시판에 올린 다음 독자들의 반응을 듣고 계간지에 함께 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작가X’ 코너에는 〈스핑크스 아래서〉가 소개되었다.⁴⁴⁾ 편집자의 의견⁴⁵⁾과 독자평에 답하는 작가 듀나의 의견⁴⁶⁾을 종합하면, PC통신의

41) 계간 『버전업』은 1996년 창간되어 1999년 여름에 11, 12권 합본을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는 점에서 PC통신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표상하는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42) 이용욱,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버전업』 창간호, 1996, 11쪽.

43) 그들은 SF와 판타지를 통해 ‘현실’을 에둘러 이야기하려는(풍자하려는, 비유하려는, 탐색하려는) 욕구로써가 아니라 단지 가상과 환상 그 자체를 경험하고 즐기고 싶은 욕구 때문에 스스로 글을 쓰고 읽는다(게임을 하며, 영화를 본다). 한정수, 「96 가을 비트(bit)로 문학하기」, 위의 책, 32쪽.

44) 『버전업』 제7권(1998 봄호)에는 「스핑크스 아래서」 전문과 PC통신에 실렸던 7인의 독자평이 실려 있다. 독자평은 작품을 분석하는 긴 비평부터 작가가 누구인지를 추측하는 짧은 의견까지 다양하다. 최종적으로 잡지에서는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누구인지를 밝히며 작가X 코너를 마무리한다.

45) “〈작가X〉에 초대된 두나일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버네틱한 작가이다. 몇 명이 공동 창작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추측만 가능할 뿐,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두나일당의 [스핑크스 아래서]는 허구가 실제로 전이되

글쓰기는 내용뿐 아니라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섞이는 영역이며,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인터랙티브한 장르가 된다. 이를 통해 문단문학의 규범을 해체하고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문학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두나에 관한 논의는 PC통신과 SF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경아와 더불어 이루어지거나⁴⁷⁾, 『세계여성소설결작선』과의 관계에서 페미니즘 SF가 출현한 시기를 1990년대로 보기도 한다.⁴⁸⁾ 송경아와 두나는 모두 PC통신 하이텔 과학소설동호회 출신이며, 사이버문학과 SF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메타픽션 기법을 활용하며 실험적 글쓰기를 시도한 송경아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문단문학장에서도 관심을 가진 반면, 두나는 기존 문단에서 호명되지 않았다. 이때 사이버공간에서 한국 SF를 장르문학으로 정립시킨 장본인인 두나는 문단문학과 철저히 무관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며, 1990년대

는 과정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투사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동안 문학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독자들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이 사이버문학의 서사이론과 소개 부분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욱, 「권두언」, 『버전업』 7, 1998 봄호, 7쪽.

46) “여기까지가 두나가 의식적으로 주입한 기본적인 패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뭔가 더 나온다면 인터랙티브한 독서의 결과겠지요. 누가 소설을 일방적인 장르라고 했습니까?:-)” DJUNA, 위의 글, 238쪽.

47) 노태훈은 송경아의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중 사례 연구 부분인용』(여성사, 1994)과 두나의 『나비전쟁』(오늘예감, 1997)을 사이버문학의 성취로 보고, 1990년대 한국소설은 PC통신을 매개로 유통되면서 기존의 관습적, 전통적 주체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의 감각을 조금씩 획득할 수 있었다고 파악한다. 노태훈, 「1990년대 한국소설과 소수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22, 158-159쪽.

48) 허민석은 당시 서구의 SF는 PC통신 동호회에 의해 주로 번역됐으며, 『세계여성소설결작선』의 작품 선정에 두나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SF를 번역·소개하는 작업이 SF 팬덤과 페미니스트들이 맺은 전략적인 제휴임을 확인한다.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송경아와 두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1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322쪽.

의 축소된 문학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하다.

1990년대 듀나의 작품을 살펴보면, 판단을 보류하는 철저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쓰였거나(〈무궁동〉), 단일하고도 확고한 주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허깨비 사냥〉), 인간의 의식은 외부에서 조종될 수 있는 허약한 것이다(〈꼭두각시들〉). 듀나의 세계관은 연결되어 있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 그렇기에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세상의 물체들이 움직이며 맺는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것”⁴⁹⁾이 된다. 이렇게 듀나의 SF는 나비효과를 구현하는 초능력자들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사변이 활용되거나(〈나비전쟁〉) 클론(〈무궁동〉)이나 외계 영역의(〈그 크고 검은 눈〉) 비인간 존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듀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소설을 쓰는 유일한 한국 작가이며, 이런 글을 쓰는 작가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⁵⁰⁾ 이와 같이 듀나의 SF는 상식과 일상 밖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며, 어떤 것도 자명하지 않다. 개인의 경계가 희미하고, 자의식이 비대한 주체가 찾아지지 않는다.

가령, 〈꼭두각시들〉⁵¹⁾에서는 정신조종술이 가능한 세상이 펼쳐진다. 주요 요직에 있는 인물의 정신을 복잡한 컴퓨터 장치로 몰래 조종하는 ‘나’가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의 정신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

49) 듀나, 「나비전쟁」(1996), 『면세구역』, 북스토리, 2013, 47-48쪽.

50) 「끈」은 모든 인간의 기억을 다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전쟁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이야기로서, 그는 “이영수 선생님”(작중 작가의 이름이자 듀나의 실명에 해당)을 찾아온 이유가 “마치 아시모프” 같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소설을 쓰는 유일한 한국 작가이기 때문이며,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듀나, 「끈」(1996), 『태평양 횡단 특급』, 문학과지성사, 2002, 202쪽.

51) 듀나, 「꼭두각시들」(1996년 하이텔에 「꼭두각시」로 발표되었고, 2000년에 수정본이 『태평양 횡단 특급』에 실렸다), 위의 책.

으며, 이 세상에는 조종당하지 않는 인간이 거의 없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로의 정신을 부분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 의지'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인간의 의식이 외부에서 조종 가능한 것이라면, 또한 서로의 조종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허약한 것이라면, 단일한 주체나 본질주의적 주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궁동>⁵²⁾은 한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의 기억을 기술한 이야기다. 자신의 환자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잃은 딸을 대신해 만든 클론이었으며, 알고 보니 어머니의 어머니를 대신한 클론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즉 딸이 죽은 어머니의 DNA로 클론을 만들어 자기 딸로 삼음으로써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모녀 관계는 결국 자기 반복이라는 '무궁동(無窮動)'의 폐쇄회로이며, 줄기세포 복제 기술로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기생(寄生)>⁵³⁾은 기계가 도시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도시 시스템에서 필요 없어진 사람들이 제거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생산 시스템은 기계가 담당하고, 소비 시스템 중 일부에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므로, 여기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기계의 빈틈에서 몰래 기생한다. 이때 지식 소비 시스템의 재편으로 지식인들이 떨궈져 나오고, 시스템의 허점을 간파한 사회 선생이 인간에 의한 반혁명을 이루려 하나 쿠데타는 실패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역사 선생의 방해에 있었다.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도시에 매료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그녀가 도시 문명의 미래에 굉장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녀가, 인간들이 그들을 넘어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서는 것처럼 부당한 것은 없다고 생각

52) 듀나, 「무궁동」(1996), 위의 책.

53) 듀나, 「기생」(1996), 위의 책.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시는 서서히 인간의 가치를 넘어 자신만의 문명과 지성을 발전시키는 중이었다. 사회 선생의 반혁명이 성공해 우리같이 밀천 떨어진 바보들이 다시 지구를 점령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것이다.(140)

역사 선생은 기계가 이룩한 안정된 생태 시스템과 아름다운 도시의 구조에 매료되어 있다. 인간의 문명은 자연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에, 그녀는 인간들이 도시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서는 것이 부당하다 여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은 조화롭게 굴러가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장본인이며, 그런 인간에게는 다만 도시-자연의 균형 생태계에 '기생'하는 것만이 가능할 따름이라는 서늘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찾아지는 반(反)휴머니즘은 결국 근대적 휴머니즘에 기반한 반(反)인간중심주의에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대표적으로 살펴본 두나의 작품들은 진정성의 주체가 이미 불가능한 시대에도 여전히 포스트 진정성을 붙들고 있었던 당시 한국문학에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일침을 가한다. 또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의 가능성⁵⁴⁾을 담보하지만 직접 열렬하게 외치는 대신 관찰자의 시점에서 건조하게 목적담을 전달하는 우회로를 채택한다. 두나의 SF는 1990년대 포스트 진정성 문학의 특징으로 지목되었던 개인, 일상, 내면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문학동네』의 문학주의 외부에 위치한다. 그럼으로써 문단문학이 사로잡혀 있던 진정성 레짐에서 가볍게 탈출한다. 김승옥의 소설이 SF임

54) 두나의 SF를 최근작까지 살펴며 “여성 주인공이 인간(남성)중심적 원칙의 허점을 드러내고, 체계의 비합리성을 드러내며, 합리적인 여성 주체가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로 파악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강은교,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worlding)로서 두나의 SF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2, 42쪽.

에도 자기세계에 매몰된 남성 지식인의 인간중심주의와 거기에서 비롯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듀나의 SF는 주체 자체에 무심함으로써 근대적 자유주의 휴머니즘을 해체한다. 또한 인간중심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는 반(反)인간주의의 세계관이야말로 1990년대 듀나의 SF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그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듀나의 사변적 시도는 사이버공간에서 열린 SF가 과도하게 제한된 인지주의적 가정들을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⁵⁵⁾을 보여준다. 이렇게 듀나의 1990년대 SF는 직접적으로 당시 사회문제를 거론하거나 가부장제를 공격하거나 여성 문제를 발화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인 남성 중심의 진정성 레짐에서 벗어나 근대적 휴머니즘의 외부로 모색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스트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⁵⁶⁾

듀나의 SF는 서구 페미니즘 SF와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용과 새로 열린 사이버공간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산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문단문학은 위축되었고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취는 축소되고 단절되었다. 문단문학 외부에 눈을 돌려 SF의 성과를 수용할 때, 현재 한국문학장에 도래한 SF 현상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55) 스티븐 샤퍼로, 앞의 글, 22쪽.

56) 가령, <기생>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아 군대를 조직하고 도시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반혁명을 주도하는 자는 사회학을 전공한 남성 지식인이며, 그것을 막은 역사 선생은 여성이라는 설정이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은 근대적인(남성) 보편 주체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와 절연하려는 페미니스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4. 2020년대의 포스트 감수성: 감각하는 존재와 따뜻한 과학

2020년대 한국문학의 SF 현상은 SF 문학의 확장으로, 아니면 문학장의 형질변이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결국 SF와 문단문학의 조우를 통한 한국문학의 부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SF 공동체에서도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공모전(2019년)의 심사평에서도 일반 문학에 가까운 작품들이 많아졌음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⁵⁷⁾ 이 공모전에서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SF적인 장치를 그리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 점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작품이었다”⁵⁸⁾는 심사평은 주목을 요한다. 천선란은 이후로도 한결같은 수작을 발표하고 있으며, 독자가 뽑은 ‘2022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올랐다.⁵⁹⁾ 이렇게 SF와 순문학의 장점이 교차하는 천선란의 소설은 대중 독자의 사랑과 기대를 받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⁶⁰⁾ 그리고 『천 개의 파랑』을 단독으로 다룬 논의도

57) “이번에 두드러진 경향은 주류문학의 배경이 엇보이는 작품이 많았다”(박상준, “과학기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이지용), “일반 문학에 가까운 작품이 많이 눈에 띄었다”(김보영)는 평이 그러하다. 천선란, 『천 개의 파랑』, 심사평, 허블, 2020, 359-372쪽.

58) 위의 글, 367쪽.

59) <예스24 독자가 뽑은 ‘2022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천선란 작가>, 『채널예스』, 2022.08.16., 접속일: 2023.06.13., <https://ch.yes24.com/Article/View/51438>.

60) 양윤의·차미령, 「천선란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가능성-페미니즘과 SF의 동맹에 주목하여」, 『현대소설연구』 제8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이지연, 「위기에 대한 사유와 SF의 대안적 상상력-천선란의 『나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임지연, 「천선란의 SF에 나타난 ‘객관적 현상학’과 생태적 사유-천선란의 『나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8호, 한국비평학회, 2023; 표유진, 「초생명성(Epivitality) 시대를 위한 포스트휴먼 윤리-천선란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제출되었다.⁶¹⁾

『천 개의 파랑』에는 감각하는 존재로서 로봇이 등장한다. 기수용 휴머노이드 콜리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그와 동시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에, 이야기가 진행되며 초점화자가 계속 바뀐다. 콜리에게서 민주로, 연재로, 보경으로, 은혜로, 지수로 바뀌면서 같은 공간이 서로 다른 존재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감각되는지, 서로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 알게 한다. 그런 한편 상대를 돕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차이 있는 존재들의 공생 가능성을 그려낸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경마산업으로 대표된다. 더 빠른 기록을 위해 최적화된 휴머노이드 기수를 제작하고,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잘 달리는 말은 무릎 연골이 나갈 때까지 쉬 없이 달리다 소용을 다하면 버려진다. 이때 경마산업이란 인간의 재미를 위해 동물과 로봇이 기능하는 구조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구조용 소방로봇 제작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붓지만 낡은 소방복은 새로 지급하지 않고, 각종 용도의 휴머노이드 산업은 커지지만 휠체어 보행환경의 불편함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상은 기술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그 빠른 회전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도태된다. 그리하여 경마장 인근 한적한 교외에서 음식점을 하는 보경네 집에서 빠른 속도에 착취당하거나 도태된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이다.

『천 개의 파랑』은 콜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변화의 이야기다.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기수(콜리)가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용감한 인간(연재)에게 구조되어 그 인간이 친구(지수)와 함께 장애를 가진 언니(은혜)를 위한 발명을 하게 돕고, 이들과 함께 안락사가 확정된 경주마(투데이)의 행복을 위해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희생한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61) 진선영,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본 SF 성장소설과 인간-비인간의 양상불-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위해 말 관리자(민주)와 수의사(복희)의 도움뿐 아니라, 경마장 승부조작 기사 송고를 포기한 기자(서진)와 우승 확률이 전혀 없는 투데이에게 선뜻 배팅을 해준 편의점 사장님과 같은 어른들의 조력도 있었다.

동시에 이 이야기의 사변은 콜리의 존재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콜리는 인간의 실수로 학습용칩이 내장되는 바람에 기능 중심의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기수와는 다른 '이상한' 존재가 된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객체가 생물 진화를 모델링한 유전 알고리즘을 갖고 성장한다는 소설이 언급되는데, 테드 창이 SF가 소개되는 이 장면을 통해 『천 개의 파랑』과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의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⁶²⁾ 콜리는 테드 창이 디지털트들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 콜리는 상대방과 세상을 점차 알아나가게 되기도 하지만,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를 분석하는 샤비로에 의하면 지능은 특별한 인지 기술이라기 보다는 전반적 감수성(감각력, 지각력)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지능은 언제나 유한하고 상황적이며, 또 체화된 것이다. 그리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창발한다.⁶³⁾ 그리고 이때 감수성은 인지하기보다는 감각하고 느끼는 것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계인 콜리는 감수성을 가진 존재일까?

“살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살아 있다는 건 호흡을 한다는 건데, 호흡은 진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진동이 큰 순간이 행복한

62) 수의사 복희가 미래에 인공지능 객체가 반려동물을 대신하는 소설을 환기하며, 인공지능 객체가 생물의 진화를 모델링한 알고리즘을 가져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그 소설이 테드 창이 SF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이며, 동시에 스티븐 샤비로가 해당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63) 스티븐 샤비로, 앞의 글, 119-121쪽.

순간이에요.”

콜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연재가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넘겼다. 다시 디스플레이로 시선을 돌리고는 말했다.

“그런데 너는 못 느끼잖아.”

행복이라는 건 결국 자신이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단어 아닌가.

“저도 느껴요.”(...)

“저는 호흡을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 느껴요. 옆에 있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져요. 저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행복해지면 돼요. 괜찮지 않나요?”

그건 진정으로 너 자신이 느끼는 행복은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연재는 말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거 같아. 좋은 일이네.(302)

콜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감각하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호흡을 하지도 못하지만 다른 존재의 호흡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즉, 콜리는 느끼는 존재로서, 인간이 감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감각한다. 디지언트의 지능이 유기적 존재의 지능과 근본적인 의미에서 다르지 않기에 테드 창이 감수성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부터 조심스럽게 분리했듯이⁶⁴⁾, 천선란 역시 연재(인간)와 콜리(기계)의 대화를 통해 인간중심적인 이분법을 넘어 인간과 기계는 감각하는 방식이 다를지언정 모두 감수성을 갖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특히 “행복이라는 건 결국 자신이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단어 아닌가”라는 연재의 생각은 휴머니즘의 개체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다른 생명체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느낌으로써 행복해지는 기계가 있다는 것, 그를 통해 연재는 공생의 방법을 깨우친다. 그리고 이러한 콜리와 관계 맺는 존재들

64) 위의 글, 123쪽.

은 정말 점차 행복해진다. 이렇게 콜리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느끼는 존재이며, ‘공생의 원리’⁶⁵⁾를 알리고 전파한다. 이에 따르면, ‘경계가 있는 개체주의’⁶⁶⁾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명한 사실이 아니므로, 인식의 주체를 자임하며 공고한 자기세계를 구축했던 근대적 주체도 환상일 뿐이다.

김승옥이 개인의 발견과 자기세계의 구축을 통해 ‘감수성의 혁명’을 가져왔다면, 천선란은 타자의 행복을 느껴 행복해지는 콜리를 통해 ‘포스트 감수성’을 제시한다. 콜리의 감수성은 인지의 문제보다는 느낌의 문제에 확실히 가깝다는 차원에서, 감수성이란 인간만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 물질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승옥의 SF에는 휴머니즘 주체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과학기술에의 전면적인 부정성이 나타났다면, 천선란의 세계에서는 로봇과 인간이 서로를 돕고, 장애가 있는 언니를 위해 ‘소프트휠-체어’를 만들어낸다. 바퀴 속에 인공 근육이 심겨 있는 ‘소프트휠-체어’는 장애물을 만나면 모양에 맞춰 바퀴의 형태를 변형하여 어디에서든 이동이 가능하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계단을 없애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 세상에 맞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바퀴를 만들려는 것이다. 나아가 김승옥의 세계에서 알파 박사가 궁극의 기술 발전이 야기한 공포로 인해 자살한다면, 천선란의 세계에서 콜리는 투데이의 행복을 위해 낙마하여 스스로를 희생한다. 그리고 알파 박사의 자살이

65) 해러웨이에 의하면 어떤 것도 실제로 자율생산적(autopoietic)이거나 자기-조직적이지 않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따라서 생명체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공-산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며 개체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107-109쪽.

66) 해러웨이는 서양철학과 정치경제학의 오래된 상투어인 인간예외주의와 경계가 있는 개체주의가 호모 사피엔스-종으로서의 인간Human, 인간종으로서의 인류Anthropos, 근대인Modern Man을 낳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본다. 위의 글, 57쪽 참조.

준에게 불안을 야기했다면, 콜리의 죽음은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던 투데이의 생명을 훨씬 길게 연장시켜 준다. 이렇게 기계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마음을 다할 때, 과학기술은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중심주의 및 개체주의와의 결별에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천선란의 SF가 보여주는 포스트 감수성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감각하는 존재로 확장되고, 서로 연결된다. 포스트 감수성은 감각적 존재들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대상을 타자화하고 자기와 구별지으며 휴머니즘 주체성에 고착했던 근대적 주체와 결별한다. 자기세계에 고립된 불안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한 삶에서 행복의 가능성이 그려지는 공생의 사변은 세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투데이의 연골 상황에 맞는 느린 속도로 달림으로써, 빨리 달려야 하는 경마의 법칙에 균열을 내고, 속도를 늦출 줄 모르는 기술자본주의의 회로에 제어를 가한다. 이와 같이 과학소설과 일반소설, 그리고 페미니즘이 교차하는 사변적 페미니즘(SF)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사고실험만으로도 불가능하고 사고실험 없이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

5. 나가며

최근 한국문학에서 SF는 쉽고 친절하면서도 현실 변화의 강력한 장치로서 영 페미니스트 독자들에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SF는 이중의 장점을 통해 페미니스트의 언어와 방법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일련의 문단문학의 행보와도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사변적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김승옥의 1960년대 SF, 듀나의 1990년대

SF, 천선란의 2020년대 SF를 경유하여 한국문학에서 감수성의 차원에서 비롯된 주체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사변적 페미니즘이 보여주는 새로운 감수성과 주체성을 확인해보았다.

김승옥은 ‘감수성의 혁명’을 통해 한국문학에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알렸고, 4.19세대는 스스로의 문학에 등장한 개인을 ‘진정성의 주체’로서 미화한다. 동아일보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연재된 김승옥의 SF <50年後, D π 9記者의 어느날>(1970)은 50년 후의 미래인 2020년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기발한 사고와 적중률 높은 예측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SF임에도 변함없이 여성 타자화와 인간중심주의가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혁신의 상상력은 궁핍하다. 이러한 상상력의 선택적 빈곤과 세계관의 불변은 감수성의 주체(인식의 주체)가 오로지 지식인 남성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성 레짐’ 안에서 창작된 김승옥의 SF는 인간(남성) 주체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주체의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서사로서 세계 변화에 대한 상상력이 제한적이다.

진정성 레짐은 87년 체제 이후 ‘근대문학의 종언’과 더불어 막을 내렸지만, 1990년대에도 문단문학은 진정성의 계승에 매몰되어 포스트모더니즘적 변화를 외면하고 여성문학의 성과를 축소하였다. 그렇기에 문단문학 외부에서 시도된 다양한 문화운동과 PC통신을 매개로 한 변화들을 보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대 문화이론을 소개한 『문화과학』은 특히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다루었으며, ‘사이버문학 비평그룹’ 『버전업』은 사이버공간과 지면을 왕래하며 새로운 문학을 추구하였다. 이때 사이버공간에서 한국 SF를 장르문학으로 정립시킨 듀나는 진정성의 주체 자체에 무심함으로써 근대적 자유주의 휴머니즘 주체를 해체할 뿐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는 반(反)인간주의의 세계관을 특징으로 한다. 듀나의 1990년대 SF는 직접 사회문제를 거론하거나 가부장제를

공격하거나 여성 문제를 발화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레짐을 해체하고 근대적 휴머니즘의 외부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스트 시각을 확보한다. 이처럼 듀나는 문단문학과 철저히 무관했기에 역설적으로 1990년대의 문학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하다.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2020)은 로봇과 동물과 인간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상호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따뜻하고 선량한 이야기다. 그리고 천선란은 인간중심적인 이분법을 넘어 인간과 기계는 감각하는 방식이 다를지언정 모두 감수성을 갖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휴머노이드 콜리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느끼는 존재이며, 공생의 원리를 알리고 전파한다. 이렇게 최근 한국의 SF는 모든 감각하는 존재로 확장되고, 서로 연결된 '포스트 감수성'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대상을 타자화하고 자기와 구별지으며 휴머니즘 주체성에 고착했던 근대적 주체와 결별하고, 서로를 돕고 살리는 따뜻한 과학기술을 구현한다.

김승옥의 소설이 SF임에도 진정성 레짐에 처한 남성 지식인의 인간중심주의와 거기에서 비롯된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듀나의 SF는 주체 자체에 무심함으로써 근대적 자유주의 휴머니즘 주체를 해체한다. 1960년대 김승옥이 개인의 발견과 자기세계의 구축을 통해 '감수성의 혁명'을 가져왔다면, 2020년대 천선란은 타자의 행복을 느껴 행복해지는 휴머노이드 콜리를 통해 '포스트 감수성'을 제시한다. 최근 한국문학의 SF 현상은 SF 페미니즘과 문단문학의 조우를 통한 한국문학의 부흥이기에, 1990년대 사이버공간과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듀나의 SF를 환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고실험과 감동이 어우러진 사변적 페미니즘(SF)은 과학소설과 일반소설, 그리고 페미니즘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승옥, 「50年後, Dπ9記者의 어느날」, 『동아일보』, 1970.04.01-02.
듀나, 『태평양 횡단 특급』, 문학과지성사, 2002.
듀나, 『면세구역』, 북스토리, 2013.
천선란, 『천 개의 파랑』, 허블, 2020.
『문화과학』, 7, 8, 15호, 1995, 1998.
『버전업』 창간호, 7호, 1996, 1998.

2. 논문과 단행본

- 강은교,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worlding)로서 듀나의 SF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22.
강지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 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 제67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511-548쪽.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김은하,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지방 출신 대학생의 도시 입사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60집, 2017, 309-335쪽.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창간호, 1969, 2월호, 253-267쪽.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의이야기』, 요다, 2021.
노대원, 「미래를 다시 꿈꾸기-한국과 글로벌 SF의 대안적 미래주의들」, 『탈경계인문학』 제33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31-57쪽.
노태훈, 「비평의 시대와 그 무수한 흔적들」,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5-37쪽.

- 노태훈, 「1990년대 한국소설과 소수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22.
-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제66호, 상허학회, 2022, 151-192쪽.
- 소영현 외, 『#문학은_위험하다』, 민음의 비평10, 민음사, 2019.
-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쪽.
- 송희복, 「유종호의 문학비평에 투영된 언어관 내지 어문 의식」, 『한국어문학연구』 제60집, 동악어문학회, 2013, 213-241쪽.
- 양윤의·차미령, 「천선란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가능성-페미니즘과 SF의 동맹에 주목하여」, 『현대소설연구』 제8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33-263쪽.
- 연남경,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 『이화어문논집』 제60집, 이화어문학회, 2023, 65-102쪽.
- 유종호, 『문학과 현실』, 민음사, 1975.
-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정소연 외, 『자음과모음: 특집-‘SF 비평의 서막’』 제42호, 2019 가을호.
- 조연경,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221-246쪽.
- 진선영,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본 SF 성장소설과 인간-비인간의 양상불-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541-567쪽.
-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1990년대 한국문학장의 재편과 여성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제11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5, 278-301쪽.
- 한상현, 「1990년대 한국 SF 소설 팬덤의 문화 실천」, 『현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245-270쪽.
-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송경아와 두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1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20, 315-358쪽.
-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플래닛, 2013.

스티븐 샤비로, 『탈인자-SF로 철학하기 그리고 아무도 아니지 않은 자로 있기』, 안호성 역, 갈무리, 2022.

3. 기타자료

김다희·박준기·이정연·이민재, <대담: 김초엽의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글리프]>, 『글리프 6호: 김초엽[실험]』, M.D.LAP PRESS, 2022.

배문규,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 역대 최다... 여성 독자들이 이끌고, SF·청소년 장르 다양해졌다>, 『경향신문』, 2020.09.22. 접속일: 2023.07.06.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009221030001>.

임지영, <‘과학소설’ 전성시대, 왜 지금 SF일까?>, 『시사IN』, 2020.11.25., 접속일: 2023.07.0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10>.

<파주시중앙도서관, 『SF 김승옥』 온라인 북토크 진행-〈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와 후배 작가들의 만남->, 입력일 2020.12.17., 접속일 2023.08.31.

https://www.paju.go.kr/news/user/BD_newsView.do?q_ctgCd=1001&newsSeq=440

<예스24 독자가 뽑은 ‘2022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천선란 작가>, 『채널예스』, 2022.08.16., 접속일: 2023.06.13.

<https://ch.yes24.com/Article/View/51438>.

Abstract

Changes of Sentience in Korean Literature through SF -From a subject of authenticity to sentient beings

Yeon, Nam-kyung(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Korean literature is experiencing a success through the combination of science fiction and literary literature. Accordingly, in terms of sentience, this study traces the changing aspects of subjectivity through Seung-ok Kim's 1960s SF, Djuna's 1990s SF, and Seon-ran Cheon's 2020s SF.

Seung-ok Kim announced the birth of the modern subject in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revolution of sensibility,' and the 4.19 generation signifies the individuals who appear in their literature as 'subjects of authenticity.' Based on this, his "One Day of the D π 9 Reporter, 50 Years Later"(1970) has a SF predi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the othering of women and anthropocentrism remain the same. The narrative, dominated by anxiety over the loss of human(male) identity, cannot imagine social innovation even though it is science fiction.

Djuna's SF in the 1990s was completely unrelated to literary literature that focused only on the inheritance of authenticity, so paradoxically, it was important in expanding the literary field of the 1990s. Djuna, who established Korean SF as genre literature in cyberspace, not only deconstructs the subject of liberal humanism by being indifferent to the subject itself, but is also characterized by an anti-humanist worldview that extremely abhors anthropocentrism. As a result, Djuna's SF secures a feminist perspective by dismantling the authenticity regime centered on male intellectuals and seeking the outside of modern humanism, without directly attacking patriarchy or raising women's issues.

Meanwhile, if Seung-ok Kim in the 1960s brought about a 'revolution of

sensitivity'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and the construction of his own world, in the 2020s, Seon-ran Cheon presents 'post-sensitivity' through a humanoid Collie that becomes happy by feeling the happiness of others. In *A Thousand Blues*(2020), she goes beyond anthropocentrism and confirms that both humans and machines are sentient beings, even if their sense methods are different. In this way, the 'post-sensibility' shown in recent Korean SF expands to the characteristics of all sensing entities, breaking away from the subject of authenticity that secured subjectivity by othering the object and distinguishing it from the self. And speculative feminism, where science fiction, general fiction, and feminism intersect, illustrates the possibility of world change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speculative feminism(SF), sentience, a subject of authenticity, sentient beings, Seung-ok Kim, Djuna, Seon-ran Cheon)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12일

논문심사일 : 2024년 2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9일